

# 大司憲 鄭寅學(1839-1919)의 六梁冠 小考

## A Study on the Yukyanggwan of Chung In-hak(1839-1919)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조교수 박성실

Dpt. of Traditional costume, Graduate school, Dankook Univ.  
Assistant professor : Park, Sung-sil

### ◀ 목 차 ▶

- |                  |            |
|------------------|------------|
| I . 머리말          | V . 梁冠의 材質 |
| II . 鄭寅學의 생애     | VI . 맺음말   |
| III . 梁冠의 수용과 변천 | 참고문헌       |
| IV . 梁冠의 造形的 特徵  |            |

### < Abstract >

The yanggwan is a striped headpiece for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worn with *jebok*, a costume for the royal ancestral worship ceremony, or *jobok*, a ceremonial costume for the courtier. It was called a *jegwan* when it was worn with a *jebok*. The *geumgwan* and *jegwan* are of the same style but the *geumgwan* has a gilded band and backside and the *jegwan* is mostly lacquered. The *yanggwan* was worn first with the *jebok* by the officials, both of which were received from the Chinese Ming dynasty in the 19th year of the King Gongmin's reign during the Goryeo period. The royal crown and court clothing system was two grades lower than the standard clothing code of the Ming dynasty of China. In the Joseon dynasty, the *oyanggwan* worn by the highest grade officials had five-stripes but was later replaced during the Daehan Empire by the seven-striped *chilyanggwan* used by Ming dynasty officials. *Oyanggwan*s make up the majority of the surviving examples of these headpieces, with the exception of the six-striped *yukyanggwan* of Chung In-hak (1839-1919), the Minister of Justice, which originated in the Daehan Empire and whose owner is definitively known. The gilt portion of this yukyanggwan is finely engraved in relief with a bird, flower and tendril motif. The *yukyanggwan* is topped by a decorative bird ornament, called a *jeongkkot*. EDSS spectrum analysis of the gold plating reveals a composition of 51.32% gold and 10.34% silver. The *yanggwan* is composed of bamboo, mulberry paper and silk crepe. The black portions are lacquered. The individual *yang* is made with twisted mulberry paper.

주제어(Key Words): 양관(yanggwan), 육량관(yukyanggwan), 금관(geumgwan)

## 1. 머리말

梁冠은 문무백관이 朝服과 祭服을 착용할 때 쓰는 金冠과 祭冠을 총칭한다. 양관은 梁이라고 부르는 冠 上部의 金色의 縱線으로 인해 명칭되었으며 양의 수량에 따라 계급이 구분되었다.

조선시대 양관은 국초 國朝五禮儀, 經國大典에 규정된 문무백관의 제복과 조복제도에 기준하여 一品官用 五梁冠에서 九品官의 一梁冠까지 구분하였다. 이는 明에 비해 二等級이 체강된 제도를 수용한 것이었으나 대한제국 시기 大韓禮典에는 七梁冠制를 수용하여 명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문헌기록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遺物들은 국말 五梁冠 중심으로 전래되고 있어 실행 여부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며 六梁冠의 실물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후손에 의해 소중하게 보관되어 오다가 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후학들의 연구를 위해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기증된 大司憲 鄭寅學(1839-1919)의 육량관은 파손이 심하였기 때문에 보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육량관에 사용된 재료들을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양관을 제작하는 匠人은 經國大典의 工典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초에는 왕세자에게 사여된 육량관이 있었으나 백관용은 무역하여 사용된 단편적인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최근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인조 2년 祭器樂器都監儀軌(1624)중 양관의 구체적인 기록은 당시의 형태와 사용된 재료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최영선, 2004).

본 연구에서는 대사헌 정인학의 육량관을 중심으로 조형적인 특징과 사용된 재료를 분석하여 양관제작 내용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조선시대 양관의 수용과정과 변천과정을 간략하게 고찰해 보기로 한다.

## II. 鄭寅學의 생애

착용자의 생애는 문중에서 제시한 자료와 高宗實錄과 純宗實錄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鄭寅學은 헌종 5년 1839에 출생하여 1919에 81세를 일기로 추하였다. 국말의 문신으로 본관은 東萊이며 字는 景國, 號는 留堂으로 鄭喜朝의 아들이다. 1880년(고종 17년) 幼學으로서 文廟酌獻禮文科에 병과로 급제, 이듬해 부교리가 되었으며, 1882년 부응교로 임오군란의 피해를 지적하고 그 주모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옥당의 聯筭에 참여하였다. 弘文館提學·吏曹參議(정3품)를 거쳐 1890년 司諫院大司諫이 되었다. 이듬해 成均館大司成(정3품)이 되었으며, 1892년 司憲府大司憲(중2품), 1894년 吏曹參判(중2품) 등을 지냈다. 1901년 궁내부특진관이 되어 칙

임관 4등이 되고 봉상시제조에 제수되었다가, 1907년 궁내부특진관으로 칙임관 3등이 되었다.

유물을 기증한 鄭華泳의 曾祖考이며 예조참의, 좌승지, 중추원의관을 역임한 祖考 鄭翰謨(1863-1931)의 紗帽 한 점도 함께 기증되었다.

## III. 梁冠의 수용과 변천

梁冠은 漢代 儒學者의 進賢冠에서 유래된 것(강순제, 1996)으로 보고 되어있다. 進賢冠은 天子의 通天冠, 皇太子의 遠遊冠에 상당하는 群臣의 冠帽로서 모두 朝服에 착용하며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梁의 數를 달리 하였다. 양관의 명칭이 일반화 된 것은 明代이며 群王長子, 文武官의 조복용 관모로 제정되었고(大明會典, 卷之六十一 禮部十九 冠服二 文武官冠服) 이는 宋代 진현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梁冠이 전해진 구체적인 내용은 高麗 末 恭愍王 19년(1370)에 확인된다. 명 태조로부터 陪臣의 祭服을 사여 받았으며 1等 品官은 5梁冠, 2等은 4梁冠 3等은 3梁冠 4, 5等은 2梁冠 6, 7等은 1梁冠이었다(高麗史 卷七十二 志卷 第二十六 輿服一). 이는 明의 洪武禮制에 비추어 볼 때 二等 遞降된 것이었다.

조선조에 이르러 太宗 16년 1월 독립기구인 冠服色을 설치하여 문무백관 조복을 洪武禮制에 근거하여 시행토록 논의하였으며(太宗實錄, 太宗 16年 1月 丙午), 3월에는 恭愍王代 기록에 근거하여 各品에 따른 朝服제도를 정하고 품계별 양관도 함께 수용하였다(太宗實錄, 太宗 16年 3月 壬戌). 그 후 世宗代에 정비를 거쳐 成宗 16년(1485) 經國大典에서 완성을 보았으며 양관은 조복과 제복에 공통적으로 착용되었다. 조복과 제복은 착용사례가 다르나 表衣를 제외하고 동일한 구성적 특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완성에도 불구하고 조복이나 제복에 사용되는 옷감이나 부속품을 무역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世宗조 濟用監에서 만들어 제공하였고 成宗대에 이르러서도 제용감 收藏物로 사용하므로서 더럽고 해지기도하여 중국에서 비단을 사다가 改造토록 하였다.(成宗實錄, 成宗2年 5月 庚寅) 계속해서 中宗 29년(1534) 2월에는 북경에서 조복 한 벌을 구해 중국의 제도에 맞추어 만들도록 하고 泥豆錫을 만드는 방법도 익혀 오게 하였다(中宗實錄, 中宗 29年 2月 戊辰). 泥豆錫은 양관을 만들 때 금빛을 내기 위해 바르는 재료를 말한다. 이와 같이 梁冠도 재료나 완성품을 무역을 통하여 조달한 기록이 확인된다. 11월에는 사가지고 온 冠(양관)이 金冠과 비슷하여 泥錫를 사용하여도 금과 비슷한 색을 내므로 제후국의 신하로서 중국 신하들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중국 제도에 따라 개조하도록 하였다(中宗實錄, 中宗 29年 11月

丁亥, 戊子). 또한 中宗 30년(1535)에는 梁冠의 光彩 때문에 무역할 것을 논의하였다. 본국에서 만든 양관은 광채의 선명도가 중국을 따라갈 수 없어 무역품과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조정의 조복이 고르지 않음을 염려하여 인원이 적은 堂上官은 무역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堂下官은 본국의 생산품을 사용한다면 상하의 구분이 나타나고 朝儀가 문란하지 않아 합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양관 한 개의 값이 3, 4銀錢에 불과하고 앞과 뒤를 따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분리하면 나누어지고 합하면 완전해지므로 사가지고 올 때 분리하여 쌓아 오도록 하였다(中宗實錄, 卷七十九 三十年 四月 辛亥). 그러나 2년 후인 中宗 32년에는 신하들이 조정에서 중국의 관을 모방하여 착용하니 햇빛이 비추면 금빛이 찬란하고 金冠은 상계서도 쓰지 않는데 신하들이 쓸 수 없다하여 본국의 제도를 따르도록 하였다(中宗實錄, 中宗 32年 10月 甲戌). 당시 본국의 양관형태는 알 수 없으나, 中宗代에는 양관의 기록이 가장 많이 확인되며 조형적인 형태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복과 제복의 회복은 상당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부족한 부분은 흑단령으로 대신하였다.

인조 16년(1638) 예조에서 六禮를 치를 때 백관들의 조복이 갑자기 준비하기 어려워 正使와 副使 이외에는 흑단령을 착용하여 행례토록 하였다(仁祖實錄, 仁祖 16年 10月 戊戌). 英祖代에 이르러서 國朝續五禮儀에는 嘉禮, 吉禮, 凶禮 등 각 의례에서 4품 이상 조복을, 5품 이하는 흑단령으로 법제화 하였다(장정운, 2003).

이러한 변천과정에서 仁祖 2년(1624) 祭器樂器都監儀軌의 梁冠의 구체적인 기록은 실행기록으로서 國朝五禮儀와는 형태

상으로 많은 차이를 보여 주목되는 내용이다. 梁冠 전체에 먹칠하도록 하므로서 제복용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祭器樂器都監儀軌는 仁祖反正 이후 仁穆大妃를 위한 豊모大禮를 행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양관을 포함하여 후수, 홀, 혜에 이르기까지 제복도설 일습은(최영선, 2004) 여타의 도설자료와 명칭, 형태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계속해서 肅宗 32년(1706) 宗廟儀軌에서는 양관 전후 상하 좌우에 黼黃을 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금관의 형태를 암시하고 있다(宗廟儀軌 圖說). 한편 正祖朝 景慕宮儀軌에는 朝服冠에 金箔을 올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景慕宮儀軌, 祀官祭服圖說), 同王 18年(1794)기록에는 祭服冠에는 黑漆을 하고 金으로 새겨서 만드는 것을 禁하였다(增補文獻備考, 卷七十九 章服一).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 仁祖代부터 祭冠이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正祖代에는 조복용 금관과 제복용 제관이 구분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말의 기록인 大韓禮典에도 祭服冠은 칠을, 朝服冠은 金鍍銀金으로 만들어(大韓禮典, 四卷, 祭服圖說, 君臣冠服) 국말까지 준용되었다. 이후 大韓帝國이 성립되는 光武 원년(1897)에 이르러서는 명나라 문무관계도와 동일한 七梁冠制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각 문헌에 나타난 양관제도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표 2> 梁冠圖를 비교한 것이다.

祭器樂器都監儀軌의 양관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구성이 동일하며 뒷부분 상단의 곡선형태의 부분적인 차이를 보인다. 大韓禮典의 양관은 大明會典 文武官 梁冠圖를 옮겨놓은 형태이다. 양관의 뒷부분 양옆에는 두 개의 구멍이 있어 착용시 상투에 의지하여 고정하는 길고 가느다란簪을 꽂게 되어

<표 1> 문헌에 나타난 양관제도

문헌	恭愍王 19	太宗 16	世宗 五禮儀	經國 大典	國朝 五禮儀	宗廟 儀軌	社稷 署儀軌	景慕 宮儀軌	太學志	大典 通編	大韓 禮典
품계	1370	1383	1454	1460	1474	1703	1783~1803	1784	1785	1786	1897
一品	五梁 角簪	五梁 角簪	五梁 角簪	五梁 木簪	五梁 角簪	五梁 角簪	五梁 角簪	五梁 木簪	五梁 角簪	五梁 木簪	七梁 (冠漆)
二品	四梁 角簪	四梁 角簪	四梁 角簪	四梁 木簪	四梁 角簪	四梁 角簪	四梁 角簪	四梁 木簪	四梁 角簪	四梁 木簪	六梁
三品	三梁 角簪	三梁 角簪	三梁 角簪	三梁 木簪	三梁 角簪	三梁 角簪	三梁 角簪	三梁 木簪	三梁 角簪	三梁 木簪	五梁
四品	二梁 角簪	二梁 角簪	二梁 角簪	二梁 木簪	二梁 角簪	二梁 角簪	二梁 角簪	二梁 木簪	二梁 角簪	二梁 木簪	四梁
五品	"	"	"	"	"	"	"	"	"	"	三梁
六品	一梁 角簪	"	"	"	"	"	"	"	"	"	二梁
七品	"	一梁 角簪	一梁 角簪	一梁 木簪	一梁 角簪	一梁 角簪	一梁 角簪	一梁 木簪	一梁 角簪	一梁 木簪	"
八品	"	"	"	"	"	"	"	"	"	"	一梁
九品	"	"	"	"	"	"	"	"	"	"	"

〈표 2〉 문헌에 나타난 梁冠圖

文獻	世宗實錄 五禮儀	國朝 五禮儀	祭器樂器 都監儀軌	宗廟儀軌	春官通考	社稷署儀	景慕宮儀	太學志	大韓禮典
	1454	1474	1624	1703	1778	1783~1803	1784	1785	1897
圖									
說	梁冠 角簪	梁冠 角簪	梁冠	梁冠 角簪		梁冠 角簪	梁冠 木簪	梁冠 角簪	七梁冠

있으며 木이나 角을 시대에 따라 사용하였다. 簪頭의 모양은 大明會典에서는 사각형으로 비녀 굵기에 비해 크게 되어있으나 전래되는 국말의 유물은 소형의 원형이나 다각형으로 되어있다. 木簪에는 금칠을 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 IV. 梁冠의 造形的 特徵

##### 1) 梁冠의 特徵

梁冠은 冠 전면의 머리둘레 부분[冠武]과 冠의 중앙 전면으로부터 頂部에 이르는 검정색 縱脊에 금색의 縱線인 梁이 놓여져 있는 앞부분[梁柱], 여러 가지 무늬를 투조 장식하여 冠의 뒤를 병풍처럼 감싸는 뒷부분의 3요소로 구성되며(강순재, 1996) 여기에 冠의 뒷부분을 橫貫하는 簪과 冠을 머리에 고정시키는 纓이 포함된다. 뒷부분 양 옆에는 관무의 양 끝을 끼워 고정시킬 수 있는 고리가 달려있다. 관무 양 끝에 구멍이 있어 영을 끼워 조절할 수 있다.

梁冠의 용도와 특징에 따라 金冠과 祭冠으로 구분된다. 金冠은 朝服에 갖추어 쓰는 禮帽로서 국가적 慶事에 착용되며 흑색의 梁柱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金色칠을 해놓아 金梁冠 혹은 金冠이라고 명칭하였다. 〈그림 1〉 祭冠은 祭服에 갖추어 쓰는 禮帽로서 제례 의식에 착용하였다. 제관의 제도와 형태는 金冠과 동일하며 장식에 일부 차이가 있는데, 금관이 화려한 것에 비해 제관은 冠武 일부분만을 塗金 장식함으로써 경건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2).

또한 五梁冠 중에서도 유물에 따라 縱線 배열의 차이가 있다. 〈그림 2〉의 제관과 같이 梁柱에 같은 간격으로 梁을 배열한 것이 있는 반면, 〈그림 1〉의 금관처럼 가운데 3개, 양쪽으로 1개씩의 梁을 배열한 것도 있다.

양관의 유물은 거의 대부분 오량관 중심으로 전래되고 있으며 그밖에 삼량관과 대한제국 시기의 육량관이 2-3점씩 공개되어 전해지고 있다. 오량관과 삼량관에 대한 기록은 宣祖 34년(1601) 宣祖妃 懿仁王后的 服을 벗고 복색을 논의하



〈그림 1〉 五梁冠  
冠帽와 首飾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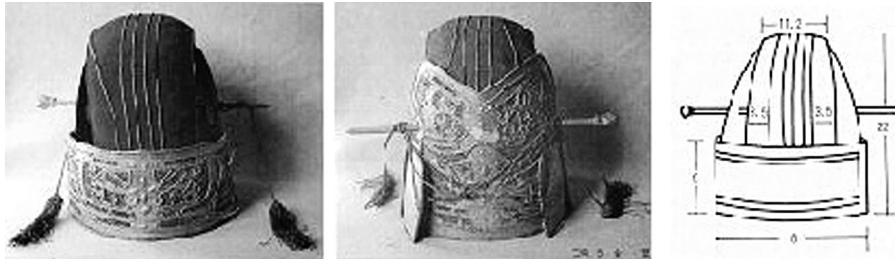
〈그림 2〉 五梁冠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는 과정에서 주목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지금의 조복에는 오량관과 이량관의 이등이 있다.”는 것이다(增補文獻備考, 卷七十九 禮服 章服). 당시 전란이 복구되지 않은 어지러운 상황을 감안한다면 설득력을 갖고 있으나 이 제도가 그대로 관행으로 내려와 당상관과 당하관을 구분하는 실행제도로 적용되었는지 고려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祭器樂器都監儀軌를 제외한 문헌 도설자료들이 국초부터 말기까지 거의 동일한 형태와 내용으로 되어 있어 형식적인 기록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지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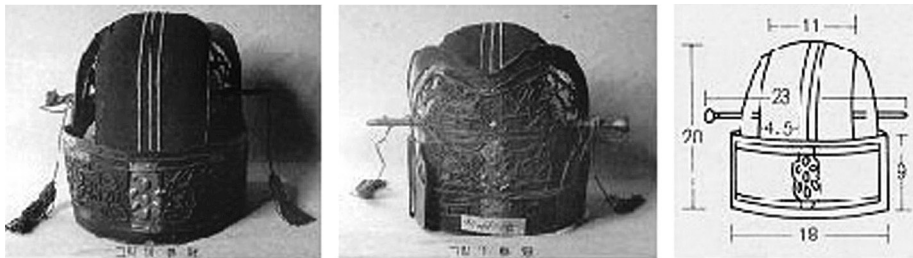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19세기 유물과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었던 오량관과 삼량관의 높이는 20cm 전후이며(장정운, 2003) 국말 유물 중에는 관의 테두리부분[冠武]을 조복과 제복용으로 겹치게 만들어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도 있다(최영선, 2004).

##### 2) 鄭寅學 六梁冠의 조형적 특징

현전하는 六梁冠은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鄭寅學 유물(그림 5)와 경상남도 시도민속자료 5호로 지정되어 있는 朴海容(1885~?)의 유물, 그리고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착용자 미상의 유물 등 3점이 전해지고 있다. 이 유물들은 육량이 모두 중심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조복과 함께 착용한 金冠이다. 光武 원년(1897) 七梁冠제도가 실행되었음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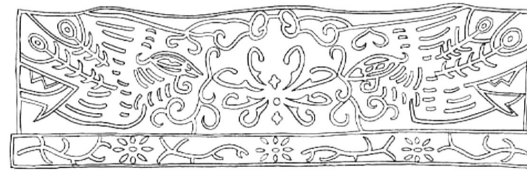
〈그림 3〉 五梁冠 朝鮮時代 宮中服飾 p.10



〈그림 4〉 三梁冠 祭冠 朝鮮時代 宮中服飾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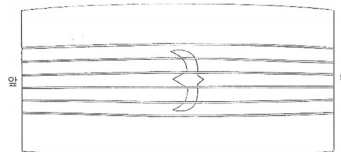


〈그림 5〉 鄭寅學 六梁冠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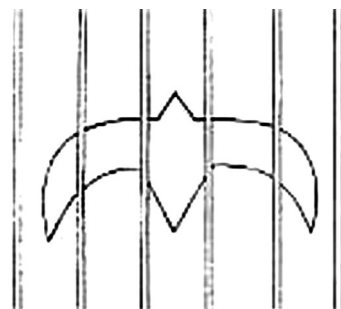


〈그림 6〉 冠武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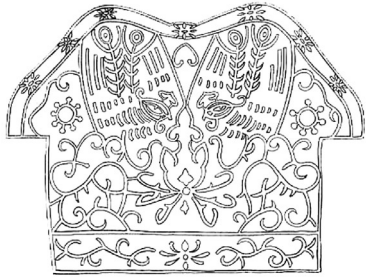
이들 가운데 鄭寅學 六梁冠의 簪은 유실되었고 남색의 纓이 달려있다. 冠武 앞부분은 둘레 24cm, 높이 7.2cm이며 넝쿨무늬의 만초와 꽃, 봉황문을 형상화한 화조문이 니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바탕은 흑칠한 細竹絲로 엮어 透彫되어 있다. 안쪽에는 검은 칠 한 종이로 배접되어 있다. 역대 그림에 나타난 관무의 높이에 비해 높게 제작되어 있다. 병풍처럼 둘러있는 뒷부분은 높이 16.3cm, 넓이 16cm ; 22cm이며 관무의 장식과 동일하며 중앙에 화조문을 배치하고 소문화와 만초, 소화문이 테두리와 양쪽 가장사리를 장식해주고 있다. 또한 검은 색 추사로 쌓여진 梁柱는 길이 27cm, 중심넓이 13cm, 전후넓이 12cm이다. 위로 六梁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고 頂部에는 새 모양의 정꽃이 장식되어 있다. 정꽃은 흑립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양관의 정꽃은 유일한 자료이다.



〈그림 7〉 梁柱 도식화



〈그림 8〉 梁柱 문양



〈그림 9〉 뒷부분 도식화

## V. 梁冠의材質

### 1) 문헌에 나타난 재질 기록

현재까지 보고된 선행연구 자료에서 양관의 제작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구체적인 기록은 祭器樂器都監儀軌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제복용 양관 재료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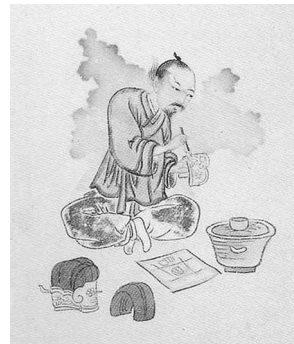
그 외에 孝宗實錄에는 “祈廟하는 날 백관의 복식에 대해 논하는 중 양관을 급히 구하기 어려워지자 양관은 풀 먹인 종이에다 금물을 바르면 날자에 맞춰 착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고한 기록(孝宗實錄, 卷6 2年 6月 14日 氣味)에서 종이사용을 볼 수 있다. 또한 居家雜服攷에는 “朝·祭服冠은 竹으로 엮어매고 羅로 싼다고 한다.”(朴珪壽, 1842)고 기록하고 있다. 반면 宗廟儀軌의 梁冠 衣次에는 “今諸執事所着則制如梁冠而裏以黑絹以雌黃畫梁前後上下亦以雌黃繪畫以木爲簪簪頭繪畫”으로 나타나 있다(宗廟儀軌, 1706). 黑絹를 사용하고 雌黃으로 관의 전후상하, 목잡의 簪頭에 금색을 그리고 있으며 의차에 기록으로 미루어 제복용 제관임을 알 수 있다.

〈표 3〉은 祭器樂器都監儀軌에 나타난 양관의 의차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살펴보면 休紙와 皂紬, 四升布는 양관의 모체를 만들고 증철사는 관의 형태를 고정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재봉사는 靑絲로 하고 紵絲는 梁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관무와 뒷부분을 연결하고 머리 둘레에 맞도록 조정하는 細條帶 형태의 술머는 청향사 영다회와 아청색술[수영], 그리고 속심으로 청면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청주 영자는 끈으로 추정되며 먹과 松烟은 흑칠에 사용된 것이다. 석자황은 양과 관무 일부분에 사용된 금칠용이다. 그밖에 작업에 필요한 불(炭)과 기름이 있으며 豬毛는 붓으로 사용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프랑스 국립 기예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그림 중에는 金冠匠이라 하여 작업 중인 인물을 묘사한 것이 전해지고 있다(그림 10). 또한(己亥)進宴儀軌 9월 초7일 기록에는 工曹 소속의 金碩昌외 4인의 梁冠匠 기록이 확인된다. 經國大典 공조 기록에는 없으나 필요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표 3〉 祭器樂器都監儀軌에 나타난 梁冠의 衣次

재 료	색 상	직 물	매일건당 소요량	총[66件] 소요량
休紙			一兩四錢式	五斤十二兩四錢
皂紬	皂	紬	二尺式	三匹三十三尺
四升布			六寸式	一匹四尺六寸
苧絲			一分式	六錢六分
中鐵絲			七尺五寸式	四百九十五尺
松烟				五兩
纓多繪每一各(二尺九寸式)	靑	鄉絲	一兩式	六兩六錢
梁次	靑	綿絲	一分式	六錢六分
垂纓二	鴉靑	紬絲	六錢式	三兩九錢六分
猪毛			三兩	
纓二八升	鴉靑	紬	長九寸	二十五尺
			廣八分式	
明油			三夕式	一升九合一夕
縫	靑絲		三里式	一錢八分
墨			二兩	全柒五夕式三升三合
炭			五升式	三十三斗
石紫黃			四分式	二兩六錢四分



〈그림 10〉 金冠匠 프랑스 국립기예 동양박물관 p.108

보인다.

### 2) 鄭寅學 六梁冠의材質分析

鄭寅學의 六梁冠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의 재질 가운데 자연 탈락한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관무의 泥金시편은 SEM으로 미세한 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크랙(crack)이 심하고 비교적 평평한 바닥과 불규칙한 모양의 물질, 도우넛 모양의 물질이 표면에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모양의 표면은 옷칠한 시료에서도 관찰되는데(이필우, 김현중, 1987) 이러한 현상은 膠水의 증발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EDS Spectrum 관찰 결과 금(51.32%)과 은(10.34%)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王概는 芥子園畫傳에서 금박을 쓰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면서 金泥과 金薄을 개는 방법도 이와 비슷하다고 기록하

고 있다. 금니는 금을 줄로 쓸어 가루로 만든 것을 眞金粉이라 하고 금박을 가루로 만든 것을 消金粉이라고 하며, 금박이나 은박을 잘게 썰은 것을 載薄이라 하여 금니·은니로 사용하였다(정기해, 1988). 위의 실험 내용을 통해 볼 때 본 육량관은 금과 은을 함께 사용해 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梁은 여러 겹의 한지를 말아서 끈과 같이 사용한 것으로, 그 표면은 금으로 도포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의 梁柱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검은 칠이 된 가늘게 자른 대나무<그림 11>과 검은 직물이다. 이 중 검은 직물<그림 12>는 縠紗이며 위사에 많은 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직물과 함께 梁柱의 형태를 이루는 검은 색의 가는 대나무를 얇게 잘라 만든 것으로 표면은 옷칠로 되어 있다. 옷칠된 부분은 경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표면에 많은 크랙(crack)이 관찰되며 벗겨진 틈으로 대나무의 일부가 관찰되었다.

관의 내부를 싸고 있는 검은색의 소재는 泥金한 재료와 같이 종이를 기본으로 하고 흑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면에서는 옷칠된 대나무와 같은 표면적 특성이 관찰되었으며 그 뒷면은 한지의 섬유들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관을 이루는 주재료가 종이를 여러 겹 취해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옷칠로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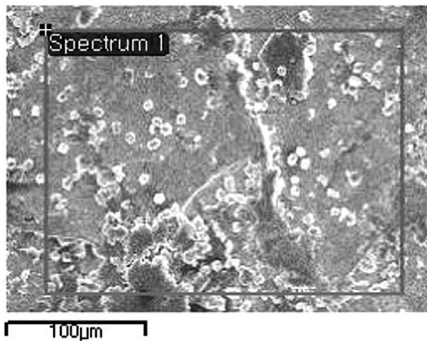
## VI. 맺음말

반과된 상태로 기증된 대사헌 鄭仁學(1839-1919)의 육량관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양관의 시료를 분석하였고 이와함께 양관의 수용과 제도,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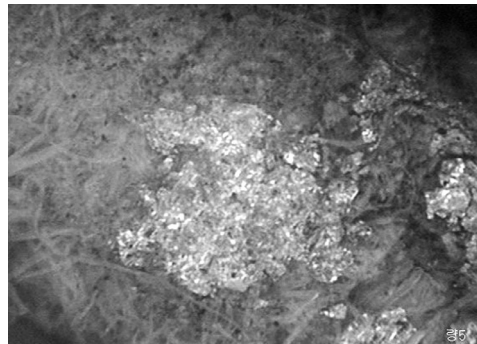
1. 정인학의 六梁冠 발견으로 총 3점의 육량관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大韓帝國시기 명나라 백관용과 동일한 七梁冠制가 시행되었음이 관찰되었고 정2품용이었다. 이는 조선시대 오량관제도에서 명에 비해 2등급이 체강되는 원칙과 구분되었다.

2. 梁冠은 冠武, 梁柱, 뒷부분의 3요소로 구성되며 정인학의 양관은 금과 은의 합금을 니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밖에 한지를 꼬아 만든 끈으로 梁을 하고 옷칠을 해주었고 바탕은 細竹絲로 투조하였으며 양주에는 추사를 사용되었다. 관무와 뒷부분에는 艸草와 소륜화, 鳳凰형태의 화조문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정상에는 새모양의 정꽃이 부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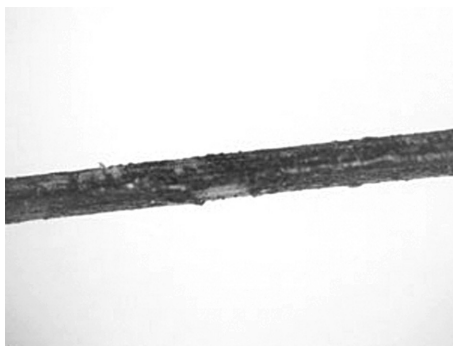
3. 祭器樂器都監儀軌(1624)의 제복용 양관을 통하여 당시 실행된 형태와 재료가 확인되었다. 이를 제외한 양관의 형태는 세종실록 五禮儀부터 太學志(1785) 까지 거의 동일하게 묘사되어 있었으며 大韓禮典의 양관은 三才圖會 양관도를 옮겨놓은 형태였다. 전래되는 자료에 비해 관무의 높이가 좁고 뒷부분은 높았으며 상단의 곡선 등에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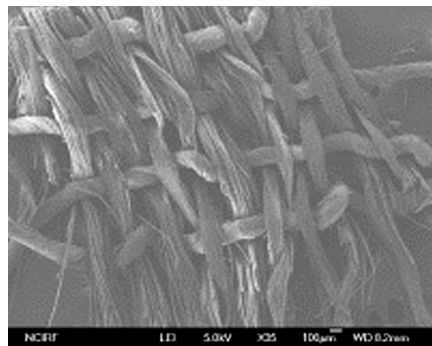
〈그림 11〉 泥金시편의 표면 (SEM, 1000)



〈그림 12〉 梁의 확대모습 (×100)



〈그림 13〉 옷칠한 대나무



〈그림 14〉 梁柱의 추사 조직 (SEM, 35)

4. 국초의 양관은 조복 및 제복용으로 통용되었으며 경사에서 재료를 구입하거나 완성품을 무역해서 사용하였다. 중종 대에 양관의 사용이 구체화 되었으며 금색으로 니금하는 방법에 두석을 이용하여 당하관용으로 사용토록 하였다. 그 밖에 석자황이 사용되었다.

5. 인조 대에 제복용 제관이 사용되었고 제관은 조복용 금관에 비해 니금 부분이 중앙일부에 사용되어 구분되었다. 그 밖에 전래되는 양관들이 오량관 중심이며 삼량관이 2-3 점 남아있는 상황에서 선조 대 당상관용 오량관, 당하관용 삼량관의 이등이 있다는 기록에 주목되며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되었다.

#### ■ 참고문헌

- 姜淳弟(1996). 冠帽 研究(Ⅲ).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6(1).
- 古典刊行會(編)(1997). 增補文獻備考. 서울: 國學資料院.
- 國立國樂院(編)(1990). 宗廟儀軌. 서울: 國立國樂院.
- 朴珪壽(1842). 居家雜服攷. 乾卷外服.
- 서울대학교(2002). 祭器樂器諸隱儀軌.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 세종대왕사업회(1996). 국역조선왕조실록. 서울: 서울시스템.
- 송방송 외(2001). (국역)肅宗朝己亥進宴儀軌. 서울: 민속원.
- 原田淑人(1970). 唐代の服飾. 東京: 東洋文庫.
- 儀軌廳(朝鮮)(編)(2000). 景慕宮儀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明)李東陽 等撰, 申時行, 等修(1976). 大明會典.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 이필우, 김현중(1987). 한국산 옷칠도막에 관한 주사전자현미경적 고찰. 목재공학, 15(3).
- 掌禮院(朝鮮)(編)(1996). 大韓禮典.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장정운(2003). 조선시대 문무백관 조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기해(1988). 한국 목조건축의 단청에 관한 고찰-기본 문양, 색채를 중심으로. 공주사범대학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영선(2004). 조선시대 문무백관의 제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5년 11월 14일 접수, 2005년 12월 6일 채택)